

## “좌윤공 사람들” 저자와의 대화



‘좌윤공 사람들’의 저자, 권오신 좌윤공파회장을 안동시 연원재사에서 만났다.

권행완 편집국장(이하 국장): 좌윤공 사람들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지요.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이하 회장): 고려의 귀족정치 시대는 무신 정치로 또 몽골 치배로 백성들의 삶이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극복하고 천한 가문을 열어주었던 선조들의 실록을 탐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자의 심리가 발동했지요. 책 제목이 ‘좌윤공 사람들’일 뿐 시조 태사공이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사이 신라 왕실 친족들 간에 심각했었던 고민에도 접근해 보려 했습니다. 태사묘, 능동재사, 운곡서원 얘기, 또 우리나라 성씨의 어원, 양촌(陽村)의 응제시 등에도 접근, 좌윤공파 후손을 넘어 다른 파의 후손들도 읽기 편하게 현대문체로 썼습니다.

초판은 당일로 절반이 되어서 8월 중에 재판을 낼 계획입니다.

국장: 집필 기간 심장 수술도 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집필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집필의 어려운 점은.

회장: 7년은 걸렸습니다. 2백자 원고지 1만 장 분량입니다. 처음엔 고려 말 불사이군(不事二君), 이신별군(以臣伐君)의 이념을 놓지 못하고 낮에도 산마루에 구름이 걸린 예전 피아글에 익어, 조선의 태종이 내린 성균관대사성과 학경도관찰사 등을 던지고 고려의 신하로 남았던 저의 18대조 송고(松皋, 휘 諱 초輯)의 익어 생활에 대한 행장을 추적, 경북마일신문 칼럼에 연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임란의 병장으로 활동하시다 좌승지, 경연참찬관(당상관), 효순으로 정려를 받으신 저의 11대조 매현(梅軒, 휘 諱 사민士敏)의 ‘임란의 병사’가 보태어지고 20살에 고려 문과에 급제, 세종 조에 들어 좌의정에 오른 문경공(文景公, 휘 諱 진경)의 실록을 탐험하면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주 한 번 재제되는 신문 고정 칼럼(경북매일)을 7년간 쓰는 논객이 되고 종보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조선왕조실록과 문집을 살피고 묵비명을 훑었습니다. 또 2018년 좌윤공파종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러한 맡고 있는 조실록(顯祖實錄)을 편찬해보자는 마음이 저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기 출간된 주밀공과 조조실록도 자극제가 됐습니다. 본격 집필 시기와 맞물려 저사 찬건과 설단 기적비(紀蹟碑)를 건립 앤이 2019년 종회에서 의결, 한꺼번에 닦쳤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연원재사 상양식에 앞서 10월 18일 심장병 수술을 삼성병원에서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데다 재사 공사 감독 및 무려 7천 자가 넘는 비문을 감수하고 그해 7월 26일엔 저의 19대조 이신 문정공(文靖公, 좌의정, 휘 諱 희정希正) 내외분의 이상 묘원 조성까지 살피야 했습니다.

국장: 집필 대상 및 혼조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대상자 선정 기준은?

회장: 어려웠습니다. 문중별 입장 차이도 분명했고요. 그래서 처음엔 생원(生員) 진사(進士) 사마시(司馬試) 대과(大科, 문과), 무과급제자, 의병장, 산림에 문헌 학자, 현인(賢人), 수직(壽職, 해마다 정월에 8, 90세 이상 관리와 평민에게 은전으로 주었던 벼슬, 작위) 대부(大夫)로 정하기 했으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 숫자도 엄청났고요. 외조상까지 이 책엔 1,000분이 넘는 혼조의 행장, 학문, 그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십이 실렸습니다. 무과 급제자는 죽보에서 조차 오르지 못한 천시로 대부분을 찾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 됐습니다.

국장: 집필하면서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되시는 선조는?

회장: 열여덟, 스무 살에 어려기로 이를 낸 고려 문과에 급제하신 혼조(顯祖) 들로 인해 문호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조모(祖母)님의 행장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점들입니다. 한국의 문중들이 같은 쳐지이기 합니다. 조모님으로 인해 가세가 넓어지고 인류가 형성, 존속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여인의 기록은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조선시대가 더 그러했습니다. 부(父)의 휘(諱)는 죽보나 가첩에

오르는데 정작 당사자인 조모는 성(姓) 한자뿐이어서 그 행장을 추적하지 못한 것이 가슴 깊은 한으로 남았습니다.

국장: 좌윤공파 사람들만의 특징이랄까 좌윤공파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 좌윤공파조 아드님이 주밀원부사(主密院副使)입니다.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門下侍郎)과 주밀원사를 지내신 혼조가 15세입니다. 당시 문하시중공 사랑채에 개경에 첫발을 디는 영남 지학(志學)들로 늘 불렀다고 합니다. 개경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보금자리를 제공한 인심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시중공의 일곱 손자 가운데 네 손자가 문과급제자로 이어지고 세종 때엔 좌의정 손자로 인해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집필에서 최대의 수확은 고려말과 조선 초기를 살았던 문정공의 배위 정경부인(印慶金之彦陽金氏, 부부 판도총랑판(判道總郎) 김해부사(金海副使) 김기可器)과 관련된 휴먼스토리입니다. 문정공이 훈례식을 치른 곳은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처갓 집 본관이 연양김씨에다 장인의 관직이 김해부사인 것을 보면 강(江)과 가까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혼인 첫날밤 쇠술을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 문정공이 신부에게 소리가 나는 연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새신랑 밥상에 올릴 보양식에 쓸 자라들이 무쇠솥 뚜껑을 치는 소리란 것을 알고 문정공이 “오늘 우리 둘은 백년 해로를 언야했는데 미물이라도 그 생명을 빼어 몸을 보하리오.” 하시고 연양김씨의 생각을 물었답니다.

정경부인도 같은 생각이어서 가마솥에 갇힌 자라별(蠶)을 새 신부의 흥의에 담아 동구 밖 강가에 나가 놓아 주었는데 아침 되어서 이 소식을 알게 된 김해부사는 사위의 어른스런 행동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보고 적선여경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문정공과 정경부인의 애물 정신이 후세에 전해져 지금도 좌윤공파 후손들은 자라를 먹지 않습니다.

안동에서도 문정공과 정경부인에 얹힌 새 증언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발전한 풍산계 계령공(竹林公) 후손 집성촌에서 사셨던 권영우(權寧旭, 39세 1972년 작고) 공의 맏이이신 좌윤공파 종회 오식(五植) 부회장에 따르면 여덟 살 때쯤 이른 봄이면 먹이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온 칠난생이(경상도 방언)를 영육(寧旭) 공이 권문은 남생이를 먹지 않는 다면서 강심까지 옮겨 놓아주는 현장을 수없이 보고 자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채굴하고 며칠을 밤잠을 설치면서 보았습니다. 7백 년 세월을 뒤졌지만 선대 조모님의 행장을 찾지 못한 여한을 조금이라도 풀었기 때문이지요.

좌윤공파 후손들은 단종 복위가 실패로 끝나는 날 김천, 원주, 경상도 연일, 영양, 예천 산골로 숨고 100년 금고형(禁錮刑)에 끝이는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문정공과 정경부인의 애물정신(愛物精神)을 놓지 않았기에 이 만큼 성장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자료출처: 인동권씨좌윤공파보 및 증언: 좌윤공 23세손 태율(泰乙) 전상주립대학교 대학원원장, 문학박사)

국장: 좌윤공파에서 5월 28일 연원재사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배흘림기둥, 연꽃이 양각된 전돌 등 고건축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떡 봄에 거의 문화재급으로 지었습니다.

회장: 네 그렇습니다. 연원재사는 세 번째 중창 공사입니다.

정조 4년(1780)에 지어진 건물이 고종 34년(1896) 화재로 4칸만 남았습니다. 1937년(정족) 이 건물을 헐고 그자 끝기와 재사를 지었으나 건물이 6도가량 기울어져 새로 짓게 됐습니다. 행완 편집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흘림기둥을 연학문 대좌에 얹고 길상과 벽사의 상징인 치미로 활자 지붕을 꾸몄습니다.

5백 명 마당엔 신라인들이 깔았던 연학문 전돌과 기와 담장으로 고건축의 미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이 재사는 설단고유제를 봉행한 파시조와 주밀공, 정랑공, 문과공과 14세 영기군, 15세 문하시중공, 그리고 지난해 안동 강남 고지역에서 연원으로 이장된 16세 문정공, 17세 현령공의 추모공간이 됩니다. 17억 원이 들었습니다.

국장: 책 제목처럼 좌윤공파 사람들은 화합과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회장: 저는 그 이유를 선대가 남긴 유산을 후손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조상을 빛내는 일에만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은 소년 생원으로 안회곡집(安惠谷集)을 쓰신 파조 좌윤공을 비롯 주밀공(樞密公), 문하시중공(門下侍郎), 문정공과 예천 피아골(翼छ동)에서 조선의 백이숙제로 주준 받았던 유현(儒賢) 송고(松皋) 선조의 신도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연원 입구에 부지까지 마련했지만 다른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훌륭한 후손이 나와 신도비를 세울 것입니다.

국장: 꼭으로 100만 죽친과 후손들에게 숭조정신과 인문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 책 말미에 “숭조정신”은 곧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썼습니다. 인구 감소 등 여러 위기가 닥치지만 그 빠대는 어느 시대고 살아 있지요. 100대 지친이 갖는 친친지의(親親之義), 화수의 두터운 정이 인문정신 일 것입니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4>

## 탄촌유고(灘村遺稿)



〈탄촌유고〉는 조선 후기 학자 권구(權綵, 1658~1730) 문집으로 8권 4책이다.

공은 좌윤공파로 태사 공 27세(世)이다. 자는 여유(汝柔)이고 호가 탄촌(灘村)이다. 부친은 호군(護軍)을 역임한 권임정(權任正)이고 생부는 역시 호군을 지낸 백부 권임도(權任度, 1626~1693)이다.

공은 우재(迂齋) 조지겸(趙子謙, 1639~1685)과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 구천(龜川) 이세필(李世弼, 1642~1718),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 1646~1715) 등과 교유하였다.

공은 추천으로 전력부위(전력副尉)로서 감역(監役)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공은 예설(禮說)에 밝아 〈탄촌유고〉 외에, 〈오복편람(五服便覽)〉, 〈예요오자고(禮要誤字考)〉, 〈상복편고(喪服便考)〉 등을 저술하였다.

공의 유고(遺稿)는 차남인 권덕훈(權德訓, 1712~1781)의 부탁으로 공의 생가 종손(從孫) 권규(權揆, 1706~1766)가 공의 사후 3년인 1732년에 공의 행장을 지었는데 이때 공의 유고가 정리되었다.

이 유고는 그로부터 200년 넘게 집안에 보관되어 오다가, 공의 8대 사손(嗣孫) 권봉집(權鳳集, 1871~1948)에 이르러 공의 벗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사손(嗣孫)인 윤하중(尹夏重)에게 출판을 부탁하면서 유고의 출판 작업이 시작되었다. 권봉집은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옛 원고를 바탕으로 행장과 묘갈명, 지인들이 지은 칠송정(七松亭) 관련 기문(記文)과 시(詩) 등을 수집하여 편집하고, 정인표(鄭寅杓, 1855~1935)에게 서문을 받고 밤은 권봉집 자신이 지어서 1929년에 윤하중의 도움을 받아 활자로 간행하였다.

그 밖에 〈오복편람(五服便覽)〉은 윤하중의 주도로 1929년에 7권 4책으로 간행되어 현재 국립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예요오자고〉와 〈상복편고〉 등의 편지는 잃어버려 전해지지 않는다.

〈탄촌유고〉의 책머리에는 1929년에 정인표(鄭寅杓)가 지은 서문(序文)이 있다.

권1에는 서(書), 서(序), 발(跋)이 실려 있다. 권2는 제문(祭文), 축고문(祝告文)이다. 권3은 잡(雜著)로 〈노문일기(魯門日記)〉이다. 권4~5도 잡(雜著)인데 〈이택문변(麗澤問辨)〉 상하(上下)이다. 권6도 잡(雜著)로서 〈석원일기(石院日記)〉, 〈명촌일기(明村日記)〉, 〈중수해산정부(重修海山亭賦)〉, 〈강정소설(江亭小說)〉, 〈정송위 광풍소설(庭松爲狂風所折記)〉, 〈여호문답(驪湖問答)〉, 〈지경도(持敬圖)〉 등이 들어있다. 권7은 만록(漫錄)으로서 이 중의 일부는 공이 1700년에 〈고성읍지(高城邑誌)〉를 수정할 때 〈군지 보유(郡誌補遺)〉에 수록한 것이다. 권8은 부록으로서 행장(行狀), 묘지명(墓誌銘), 묘표(墓表), 제공(諸公)의 기문(記文) 및 시축(詩軸)이다.

〈탄촌유고〉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에서는 구두점 찍힌 이미지와 컴퓨터 입력 원문도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공이 25세 때 스승 우재 조지겸에게 올린 편지이다.

奉違德宇, 暫已數月。瞻言悵慕, 易任下懷之憧憬。秋氣爽然, 伏承下書, 伏審伊時潦炎, 行旆颶候神相萬安, 易勝悵懲之忱。緣本以無似之質, 猥蒙不倦之誨, 一家大小, 幸叶區區之望。承教未幾, 遷撤臯比, 私心耽憂, 何以仰喻。秋間準擬負笈, 以畢未盡之誨, 而道途遼絕。家且食貧, 惟以不克自力致身爲慮耳。壬戌八月。

선생님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달이나 됩니다. 우리려보며 간절히 사모하오니 어찌 안절부절못하는 저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 기운이 상쾌한 이때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 보니 지난여름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벼슬살이 하시면서 강건하고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찌 기쁘고 위로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디 자질이 보잘것없는 외람되게 부지런하신 가르침을 받아 온 집안 모두가 다행히 저의 간곡한 소망과 맞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강학을 그만두시니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도 안타까워 어떻게 우리 려께우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 사이에 책 보따리 메고 가서 그동안 다하지 못한 가르침을 마칠까 합니다면 길이 매우 멀고 집안 또한 가난하여 생각하옵건대 저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지 염려될 뿐입니다.

임술년[1682] 음력 8월.

上韓是齋書	灘村先生遺稿卷之一	月八	灘村先生遺稿卷之一
東歸時委進門屏。適值駕言。不得拜別而還。恨恨曷勝。况葉區區之望。承教未幾。遷撤臯比。私心	讀不覺愴惻。猶慙愧也。東西千里。無由夏拜。吐此悲	憇歎。何以仰喻。秋間準擬負笈。以畢未盡之誨。而	氣爽然。易任下懷之憧憬。秋氣爽然。伏承下書。伏審伊時潦炎。行旆颶候神相萬安。易勝悵懲之忱。
紙第切點燈之懷。餘不備。履乙月丑	有其已。伏惟塗澁。體氣神爽。區區瞻慕之至。構惠文	道途遼絕。家且食貧。惟以不克自力致身爲慮耳。丙寅	奉違德宇。倏已數月。瞻言悵慕。曷任下懷之憧憬。秋
每拜春寒尚峭。靜中氣味。此時若何。伏惟千古之	字。如得拱璧而遣辭虔切。無非悼念中流出。令人奉	氣爽然。易任下懷之憧憬。秋氣爽然。伏承下書。伏審伊時潦炎。行旆颶候神相萬安。易勝悵懲之忱。	書
文章之士。嘗有感慕之心。雖於黃卷之上。猶且欽	讀。不覺愴惻。體氣神爽。區區瞻慕之至。構惠文	憇歎。何以仰喻。秋間準擬負笈。以畢未盡之誨。而	灘村先生遺稿卷之一
見其人爲歎。况後其人不遠。而幸同土壤。	有其已。伏惟塗澁。體氣神爽。區區瞻慕之至。構惠文	道途遼絕。家且食貧。惟以不克自力致身爲慮耳。丙寅	